



조선인민군 단크-장갑차 사령부 기술부사령관

박 일 무 대좌

박일무 (본명 - 박맹근) 대좌는  
1918년 12월 1일에 평동변간 형태가 안보시에브  
시 부두로 올라 가릴에서 피난으로 헤어났었다.

박일목 선생이 탄생하신 <sup>변호사</sup>변호사예브 항구 도시는 소련  
 과 북한을 경계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여 있는 역시 항구도  
 시 서우타에서 약 500 킬로 떨어진 변호사예브만 해변에  
 위치하여 있다 풍경도 한국 영도와 닮았거니와 거이나  
 전부다 한인들로 식민 되어 있는 변호사예브 구역 전체  
 도시들은 식량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아주 많으며, 러시아  
 에서 제일 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도시가 (원동에서) 약  
 100 킬로 떨어진 곳에 있어 상품 유통이 아주 활발한데  
 러부터 중국 땅이 가까이 놓여 있어 매식 만물의  
 풍류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 제정 러시아 땅에  
 이민하여 들어온 전체 한인들은 이곳을 걸쳐 또다  
 른 지방들에 가게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온 한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다행의 첫  
 운기를 주어 생기를 지어내게 하였다. 이 변호사예브 구역  
 행정 중심지는 약 20 킬로 떨어진 노보기예프스크 였던  
 바 그곳에는 한인 고층까지 설립되어 있어 어린 아들  
 의 교육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곳의 많은 한인들은  
 동만주 북간도에도 자식들을 유학 보내곤 하였다.

박일목 선생은 생활이 풍부한 고향 도시에서 소학교  
 교를 마감하고 그곳을 떠나 원동변강의 누르진 하바  
 콥스크 시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 있는 농촌정리기술전  
 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박일목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학교 시절에  
 도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신속하게 선생이 준  
 과제들을 하여 놓고는 당시 시비에 유익하게 있는 으락  
 으락 우리 공장에 가서 장시간을 보내면서 연구하곤  
 하였다. 어떻게 박 선생의 기계에 대한 소질은 고향  
 도시에서 멀리 남게 떨어져 있는 고종도 제차 볼고

항상 돌보아 주신 감사 주는 부모의 설화와 등지들의 <sup>③</sup>  
사랑을 떠나 떠나서 하바롭스크 시로 유학 갔던 것이다.

박선생이 하바롭스크로 유학 떠나게 된 것은 그 선생이  
장차 기술방면에 전공하려는 지방직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꼭 기술적 소대가 있는 큰 도시에서 공부하여야만 되  
었다. 당시 하바롭스크에는 원동변강에 유일한 농산기계 공장과  
더불어 자동차 조립-수리공장이 있었으며, 농촌경제 전문학교  
와 농촌경제 기술적 이론간부를 양성하는 농촌경제 고등간부학교  
도 있어 그야말로 박선생의 호기심을 더 끌게 한 즉 농촌  
경제 장차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적 소대를 갖춘 발달공  
업도시였다. 때문에 박선생은 풍족한 고향 땅을 떠나 하  
바롭스크로 이별의 눈물도 의식적으로 학식을 위하여  
떠날 심하였던 것이다.

박선생은 1936년에 하바롭스크 자동차 트랙터 전문  
학교를 퇴학하고 고향도시로 귀향받아 나갔다. 고향도시에  
도착한 박선생은 구역공산청년회의 회관에 의하여 백서시에  
도시 기계-트랙터 지점소 책임우리기사 겸 지점소내 공청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다.

박선생은 당시 18세의 젊은 열기에 지점소내 청년  
들의 선頭に 서서 청년 군중들을 익기 알양하게 조직동  
원하여 수리공장의 기본계획대로 세대에 트랙터들을  
수리하여 각 마을에서 파종하게 하였으며, 타기에는 끝  
바인들을 수리하여 권원에 내어 보냈으므로 후수를 제때  
에 보장케 하였다. 그 때 당시 백서시는 구역은 노부끼  
예스크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인들의 문화수준이 제일 높  
은 지방이어서 1937년 5월에 최고노베트 명령에  
따라 조선인 자치회가 조직되었으며, 각 국가 기관 당  
및 사회단체, 콜호즈와 콥호즈(국영농장)와 같은 경리 3

기관들 사이에 각종지령서나 명령서 같은 공문들이 한국어  
 로만 통과되도록 되어있다. 로마 학교로 남기는 하였으나 언  
 민 교육은 전반적 한어 교육이 아니며, 각 기관, 사회단체  
 학교등과 각종 물건 판매상점등에서의 간판까지도  
 한글 발로 써 붙어있으며, 지어는 거리 밑높까지도 한글  
 발로 써 붙어있던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일제가 조선의  
 땅을 빼앗고, 그 고압하고 아픈 답은 문화까지 짓밟고  
 있던 그 때에 이 뻔사예는 구역에서는 찬란한 고려 문화  
 가 높은 추운에서 꽃 피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소하린의 인간 배척정책에 의하여 말살되고 말  
 았다. 고려인 민족자치회는 1997년 8월 21일 한인  
 들에 대한 강제이주를 명령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와 조선 내각의 결정이 소하린과 볼로도로부의 비준  
 으로 실행 됨으로써 종말짓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한가  
 지 애비노드를 삼기 시키려한다 아직 소하린이 존재하  
 는 때였다. 1991년 7월에 소하린 방방 곳곳에  
 서 한인 전면 문화협회 창립을 위하여 약 350여명의  
 한인 언저리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들었다. 창립대회  
 는 소하린 현방을 성대한 목자브리 대회장에서 진  
 행 되게 되었다. 대회장에는 당시 소하린 최고소베는 위원  
 장이었던 루기야노브도 정부와 최고소베스를 대동하여  
 참여 하였으며, 몇 날 소베트 제도참사대부러 모스크  
 주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머리가 백발이 되었으며,  
 등이 구브러스나 반세기 이상 일제의 스파이가 될수있는 혹  
 근 분자들에란 누명을 쓰고 불신분자로 같은 천대를  
 받아오던 한인들에게 인간의 명예가 회복될 대회가  
 소하린으로 모스크바에서 진행될다는 소식을 듣고 비참적

으로 대회장에 찾아와 대회장은 한인들이 가득 찼  
 었다. 창립대회의 보고는 조선과학원 역사학원사이며  
 오쓰코바 중대 역사학부 학부장이며 역사학 박사인 박리하  
 일 나겔라예워치가 진술하게 되었다. 보고에서는 한인들이  
 조선 영호에 와 살게 된 유래와 강제이주, 쓰하린의 반민족  
 적 독재주의, 인민생활의 원흉의 정체를 낫낫히 폭로한다  
 음 어찌야 한인들이 다른 조선인민들과 같이 자유 권리  
 를 향유할수있으며 민족적 문화 단체인 문화협회를 조직하  
 고 그에 결속하여 자기 문화, 언어, 풍습 전통을 재상식하  
 여 국사에 열심히 참가하여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보고가 끝나자 대회에 참가한 각 지역 대표자들은  
 열심히 손을 다듬어가며 호른에 참가하였던바 그중 라트  
 비야 국립 종합대학 역사학부 상급교원 역사학 학사  
 나 쓰웨드라나 여사는 연단 앞에 나와 긴장한 태세로  
 호른 요지를 번지려 호른에 지적된 중요한 단락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것은 한인들의 명예박  
 탈에 대한 문제와 한인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졌던 민족  
 자치권, 즉 북부시예트 구역에 존재하였던 민족자치권  
 에 대하여 말하러 : « 최고소베트 상업위원회에 제이  
 하노라, 나는 다른 새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한인들에  
 게 유일하게 주어졌던, 그 민족 자치권을 다시 회복  
 하여 달라 » 말하니, 장내에 참가하였던 연노한 많은  
 은 한인들은 눈물을 흘리었다. 그러나 그후 민족자치  
 권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명예 회복에 대한경쟁은  
 발동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조선이 해체된 이후로 정  
 령으로 발동되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살고있는  
 한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명예회복에 대한경쟁을  
 발지 못하였다.

박 선생은 한인들이 원동에서 강제이주당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까지 가을 농사를 추수하기 위한 각종 농기계 수리를 열심히 조  
직 지도 하면서 일하셨으나, 그해 9월 초순에 주일 어배를  
고향 땅을 내놓고 당장 떠나라는 기계계에 총독의 알에서  
의 명령에 따라 다 끼어가는 배이삭, 조반, 퇴남방,  
콩반 등을 취사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화물열차에 싣혀  
적민들처럼 냉랭한 마루 바닥에서 구름에서 일개월쯤  
만 고생하고 우르르 공회국 꼬관드로 싣혀왔다. 산설고  
물선 새로운 지방에 일개월 전만하여도 한인들이 짐 짐  
적으로 끌호르나 싹호르로 조직된 농촌경리회에서 일  
하여 기계드락도르 일경호나 당 앞 사회단체들이 있  
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전부다 새사람- 처음 맞  
아주는 사람, 여정의 비보시에 누구의 조선인민의 영웅 김  
아파나시 알센씨에 위치가 준강 비서였고, 장라노비  
여가 큰 언젠가 원회 회장이였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이루인들을 댈업직위이다 증용하지 않는 환경에 불  
쾌한 박 선생은 어와노위치는 일제는 하도독없이 대북  
공부나하여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공하려고 12월 1938  
년에 꼬관도시 국립고대 수를라에 입학하여 1940  
년에 졸업하였다 동년 신학기 개학과 더불어 박선  
생은 히와시끄루에 화전리여 부교장 겸 수석물리  
선생으로 학생교육에 착수하였다. 일어난다 겨우  
지나가지 1941년에 동노전쟁이 시작됨과 관련하여  
여 다년자들은 다 전선에 동원되었으나 한여 청년들은  
불순분자라하여 전선에 동원하지 않고 전선에 동원되여  
나간 전후원들을 대신하여 공장제노나 군사적 의미  
가 있는 건설장에 동원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박 선생  
도 역시 공작전선에 동원되여 2년간 일한 다음

1943년 말에는 소련 권위권에 동원되어 원동변방 권위권에  
 파견되어 소중국경에서 복무하였다. 당시 소중국경은  
 일본 광둥군이 중국에 주둔하여 있었으므로 아주 중대하였다.

소련 정부는 1945년 5월 9일에 독소전쟁에서 대  
 승리를 쟁취한후 일제의 기반지에서 식민지로 허덕이  
 는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1945  
 년 8월 9일에 일제에 전쟁포고를 선언하였다.  
 그에 따라 박선생이 복무하던 소련 원동변방 제  
 일 전선 산하 제 25군단이 치브치-교복 대장의  
 영솔하에 대일본 작전에 참가하게 되어 박선생  
 은 드디어 1945년 8월 9일 아침 새벽부터  
 자기가 2년 동안이나 수비하여 건너만 일던 중  
 국 국경을 돌파 공격하여 훈춘시를 해방하고, 거  
 기서 부하 목단강을 통하여 일제의 병력들을 뒤쫓  
 으면서 도음, 회령, 부령을 지나 청진시를 해방하는  
 작전에 참가하여 일제의 강병이라 불리던 라본  
 사단을 골목 식한다음 함흥, 교원을 거쳐 8월  
 12일에 평양에 소련 탁하산 부대를 압호하기 위  
 하여 입성하게 되었다. 박선생은 평양이 해방  
 된후 1945년 말까지 25군단 정치부 총책관으로  
 계시다가 1948년 봄에 조선인민군대의 조직과 관련  
 하여 새로 중국인민 해방군과 조선항일 연합지산  
 부대를 골관으로 하고 조직된 사단, 연대 내의 소  
 련 교원 선생들의 책임적 번역원 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으나 박선생은 주로 조선인민군 3사에  
 서 복무하게 되었다. 그후 1948년 8월에 북한  
 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전반적 철수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105 호 단크-장갑차 근위 사단에 전  
 근되어 처음에는 단크 열대 기술부사단장 직위에서 일  
 년간 복무한 다음 1949년 9월 부하 단크-장갑차  
 사단 기술부사단장 직위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사진은 1949년 10월에 박선생이 105 단크-장갑  
 차 사단 기술부사단장으로 제설시 동사단 정치부사단장으로 계  
 시언, 최후 조선인민군의 연변공화국 영웅 안동수 선생과함  
 이 촬영한 사진이다.

안동수 선생에 대하여 첨가적으로: 안동수 선생은 원릉변강  
 에서 1920년에 탄생한 조선출신이며, 본명은 안불라지티  
 르, 하슈켄츠 사대를 마친 후 유식한 교육이었다 그로 105  
 사단에서 박선생과 같이 처음에는 사단 정치부에서 소련군  
 동역 기관으로 복무하시다가 소련군의 철퇴와 관련하여 사  
 단 정치부장 겸 정치부사단장 직위에서 훌륭하게 복무하였다.

1950년 동족상잔이 남침으로 개시되자 두가까운 친구  
 는 같은 시각에, 같은 신속한 공격개시 명령에 따라 전



원군 전공연을 지나 남한 땅에 돌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동수  
 선생은 직접 남한 땅을 돌리하는 단코를 하고 돌리하였으나,  
 그외<sup>달리</sup> 선생은 기술-수리기재를 적재한 단코 수리기재와 기  
 술근무원들과 같이 공격하는 사판의 제2 제대로, 사판의 후  
 방을 맡는다고 나가게 되었다. 때문에 안동수 선생은 벌써 19  
 50년 6월 27일 12시에 서울시에 돌리하여 13시  
 에 서울 라지<sup>방송국</sup> 방송국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에서 라지국을  
 통하여 <북한 연변군대는 서울을 함락시키고 서울 연립들  
 을 해방시켰다> 전세제에 전하였다. 이렇게 안동수 선생  
 은 용감하고도 생기 발랄한 선명한 영감이였다. 그러나  
 그후 안동수 선생의 생각은 비극이였다. 남한의 수로 서울시를 할취  
 한 연변군대는 대응리에 현운공을 만나 3일간이나 회합  
 의 양상을 부리다가 6월 29일에야 한강을 도하하여  
 남한을 계속 돌리하려 하였으나, 6월 29일 유엔  
 안보리사회의 결정은 북한을 침범자로 확인하였으며,  
 29일 북한은 유엔군 비행기들이 북한군의 권전을 제압  
 하였으며 일부에 구두하였던 이군은 부산 함에 상륙  
 하여 추풍령근처를 돌파하고 낙동강변에 돌리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도 억지로 한강을 도하한 105호 단코  
 정감외 사단은 공화국 영웅 유정수 사관장의 지휘  
 하에 남한 돌진 초시기에 해선적 불리공격으로 서울  
 을 할취하려던 속도를 북상까지 줄달림시켰하였으나, 환  
 경은 벌써 유엔군의 간섭으로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다.  
 때문에 연천에서 서울까지 700여리 땅을 3일간에  
 돌파하였으나 서울에서 수원까지 500백여리 땅을 10일  
 간에도 돌파 못하고 7월 8일에는 수원 정찰을 위한  
 유엔군과의 대전에서 안동수 정처북사단장어한 단코

는 대파되어 권속장에서 언했다. 단크 내에 앉아있는  
 권속총조원들은 그때까지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달  
 리지 못하고 서고 있는 단크란 포병알에서는 고양의 앞  
 에서 쥐새끼 모양이었다. 때론에 안중수 부사단장은 눈  
 식간에 단크의 공기관총을 때려가지고 기증성있게  
 밖으로 나오면서 권속대 밖으로 나와 지면에 눕으려고  
 명령하고 단크에서 내리는 순간 안중수 부사단장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 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은 안중수 정치부장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  
 었다. 박선생은 안중수 정치부장이 전사한 뒤에도 되  
 껴진 전차들을 수리하여 다시 권속대보에 배속시키면서  
 남동강 계곡까지 남진하다가, 1950년 9월에 단크-  
 장갑차 지휘국 기술부국장으로 승급되었는데, 1951년  
 5월에 단크 장갑차-지휘국을 단크-장갑차 사령부로  
 개편하고 그의 사령관으로 최동석 국장을 임명하자  
 박선생은 기술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그 사령부가 다  
 시 단크-장갑차 기술국으로 개편하자 새로 개편된  
 국의 국장으로 1957년 12월까지 복직하였다. 어찌 보는  
 바와 같이 예전 단크-장갑차 지휘국은 언제부터 휴전  
 한 기술국으로 개편되고 그 강력한 전후부기의 지휘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특별히 1953년 7  
 월에 당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가 압살당하  
 자 그의 장인인 최동석 장군이 그 사망건을 해명  
 하려 들었다가 사령관 직에서 추방되어 다시  
 모스크바에 귀환된 이후였다. 박선생 국장은 그 후 1954  
 년 10월까지 국장직에서 지내다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의 국적회복에 대한 문제와 압국 허가이에



사진은 박민욱 선생의 사모님 정옥순 양이 자기 장남과 같이 1979년 3월에 촬영한 것이다.

다라 본인이 귀국하게 되었으며, 본국에 도착하여  
보현군에서의 제대 문제와 연금 제정 및 기타 생활 문제  
등을 다 해 결하여 가지고 천천히 살던 제사는 하뉴켄 호시  
에 도착하여 집도 부엌도 배정 받고 아이들의 공부 문제  
부인의 취직 문제가 다 해결 되었다. 박 선생은 연금 생  
활도 하원에서도 할 날도 두지 않고 하뉴켄 호시 자동차 관  
리 사무소에서 일하시었다. 박 선생은 조국 통일에 대한  
년월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통일 되는 그 날이  
들어오면 선조들의 조국 북방에 다시 돌아와 살려고 많  
이 기다리다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 눈물감고 밤마다,  
박 선생은 상망하였으나 성장한 아들 3 형제가 사회에  
진출하고 었으며, 사모님을 건강한 몸으로 계시다. 박 선생은  
1985년 12월에 별세하시었다.

1997. 05. 25. 하뉴켄 호시에서 장원.